중앙교섭속보

2025-6호

발행일 2025년 5월 27일(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기후위기대응은 부족하고, 작업중지권 · 최저임금은 없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 제출 … 금속노조 "제대로 다시 내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1차 제시안이 나왔다. 부족하고 모자랐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7일 오후 부산 한국선원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6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올 금속노조 요구안에 대한 첫 제시안을 내놓았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5차 교섭 상황에 아쉬움이 많다. 중앙교섭은 중요하다. 금속 노사는 매년 중앙교섭을 통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합의해 왔다. 더 깊이 있는 교섭을 펼치자. 19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함께하는 중앙교섭을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지난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성원이 부족했고 큰 책임을 느낀다. 재차 말하지만, 중앙교섭 날에 사업장 교섭을 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오늘 안을 가져왔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형 회장은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을 설명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금속산별 교섭 요구 세 가지 중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만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금속노조 요구대로 금속산별협약에 기후 위기 대응 조항을 만들자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한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사용자 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과 배출 저감 목표 계획 수립 진행을 수용하되, 관련 사업계획을 조합과 '합의' 후 집행하라는 요구는 받기 곤란하다고 알렸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존 노사협의 기구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설명.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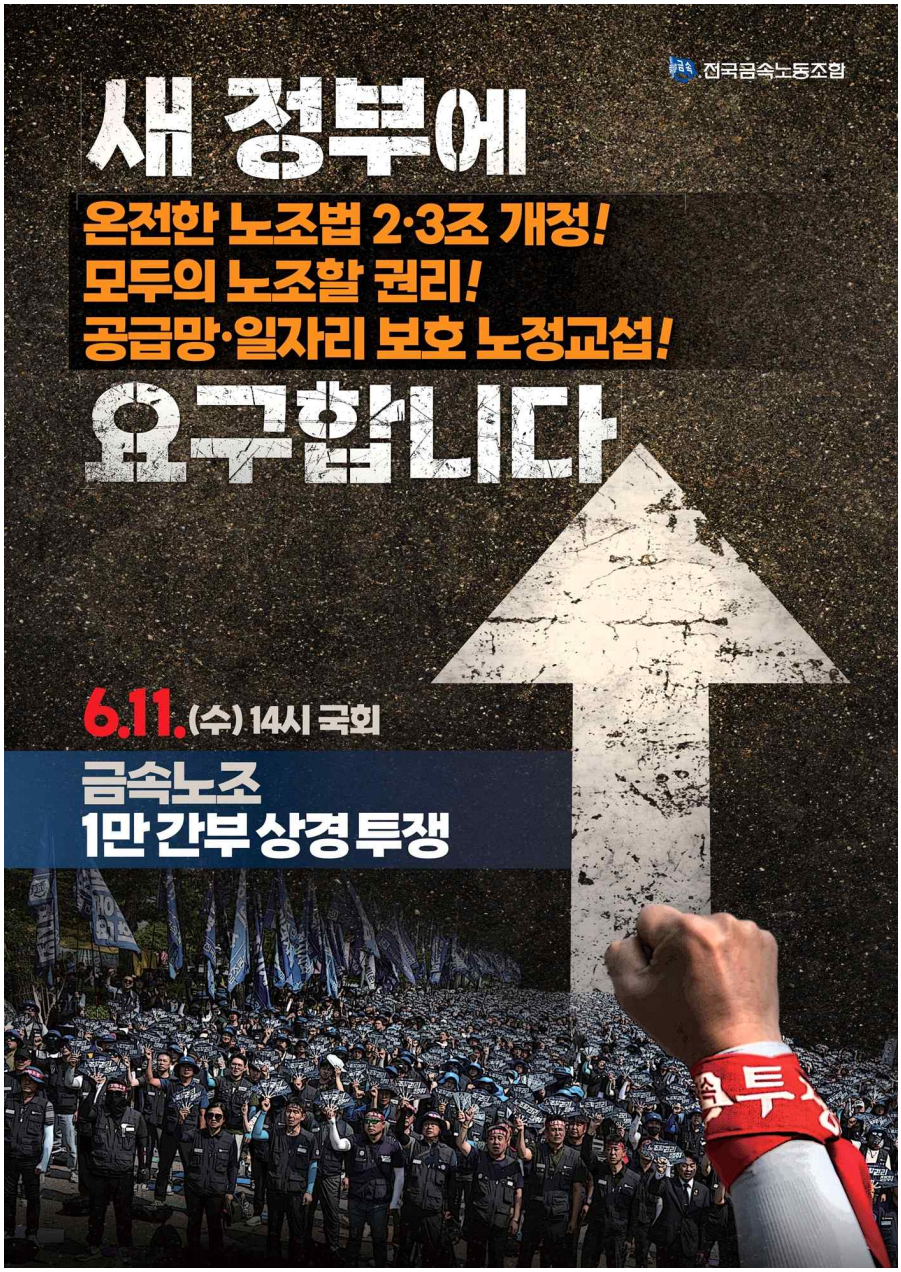
단 기후 위기 대응 요구에 대한 제시안이 나왔다. 사측이 온실가스 관리 계획을 ‘협의’ 후 실행하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조건은 합의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점을 전제로 설계한 요구안인 만큼 사측은 다시 고민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제시안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

김상민 실장은 “작업중지권 제시안이 없어 매우 아쉽다. 최소한 대법원판결 내용 정도는 오늘 제출할 줄 알았다” 라고 말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액을 마련할 때 최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은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상진 노조 사무처장은 “중대재해 더는 안된다. 노동자 스스로 위험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작업중지권은 무조건 원안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성민 부산양산지부장 역시 “사용자 측이 노조의 작업중지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위험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조 측의 안전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만큼 최대한 방법을 만들겠다. 사용자들도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만 최저임금 부분은 현실을 고려해달라” 라고 말했다.

올해 사측 첫 제시안을 살펴본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작업중지권이 올해 19만 통일요구다. 안전 문제만큼은 양보 못 한다. 다음 교섭 때는 제대로 제시하길 바란다. 속도를 내자” 라고 주문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차 중앙교섭을 다음 달 10일 충남 아산 케이엠피에서 연다.